

기아 '新 바람' 가속 페달...신제조기술 한자리에

기아 오토랜드 광주, 8·11·12일 'E-FOREST 테크데이'

완성차 무인 자율검사 플랫폼 등 50개 항목 전시돼 "조립품질 검사 'SPOT 로봇' 등 생산공정 활용 확대"

"SPOT 로봇을 활용하면 실시간 불량 검출로 자동화공정의 조립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일 오전 9시에 광주시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 조립교육센터에서 열린 사내의 신제조기술 전시회 'E-FOREST 테크데이' 행사장 한편에 광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스포트유틸리티차(SUV) 모델 '스포티지' 두 대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차량 아래에는 '로봇게'를 떠올리게 하는 4족 보행 로봇 'SPOT 로봇'이 웅크려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로봇은 공중에 떠 있는 차량 아래를 돌아다니며 실시간으로 조립품질을 검사했다.

현장에 있던 기아 직원은 "SPOT 로봇을 활용한 조립품질 'AI 키퍼' 시연"이라며 "기존 품질검사에 있던 한계를 넘어 우수한 조립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개를 돌리자 이번에는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화물차 '봉고' 캐빈(cabin)이 아주 조립되기 전 모습으로 실미계 앞에 놓여 있었다. 아직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엠블럼 부착 및 차량 실내 전장 '루프패드' 부착 등 작업을 기계가 해주는 자동화 설비다. 루프패드 부착은 비좁은 차량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탓에 불편함이 많지만, 해당 설비가 도입되면 앞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공정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 산업계의 중추를 맡고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각종 신기술이 대거 선보여졌다. 오토랜드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이번 'E-FOREST 테크데이'는 7·8일과 11·12일 총 4일간 오토랜드 광주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기아와 협력사의 신제조기술과 우수 기술을 전시·공유를 통해 기술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생산공장에 신제조기술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았다.

이날 행사를 관람한 기아 임직원들은 전시된 신제조기술을 둘러보면서 서로 평가를 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다. 앞으로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생산성을 향상하게 될 각종 제조 기술에 현장 직원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조립교육센터를 비롯한 약 550평 규모의 공간에 전시관을 마련한 'E-FOREST 테크데이'에는 완성차 무인 자율검사 플랫폼, 도장 외관검사 자동화, 플러그 자동 장착, 무선 통신기술, 모바일검사, 3D 가상 도장공장 구축,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자동화, 물류 혁신, 저탄소·에너지, 무선·디지털, 인공지능, 안전부분 등 신제조기술 50개 항목이 전시됐다.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검사원의 조작 없이 완성차 검사를 자율 실행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인 '완성차 무인 자율 검사 플랫폼'은 검사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됐다.

다른 공간에는 VR(증강현실)을 활용한 가상 조립 작업성 검증 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었다. 안경 모양의 VR용 헤드셋을 착용한 뒤 가상 공간에서 차량 조립 작업을 해보면서 작업할 때 자세를 검증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작업환경 구조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장비다.

이밖에 3D 가상 도장공장 구축은 공장을 3D 모델링해 실제 공장의 모습과 같은 가상공장을 구축



7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 조립교육센터에서 열린 'E-FOREST 테크데이'에서 SPOT 로봇을 활용한 조립품질 'AI 키퍼' 시연이 펼쳐지고 있다. <기아 제공>

한 뒤 시뮬레이션에 활용하는 기술도 선보여졌다. 앞으로 출시될 신차를 실제 투입하지 않더라도 차량의 3D 모델을 활용해 설비 양산 조건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전시된 50개 항목 중 16개 항목은 실제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작동 시연이 가능하게 전시됐다. 4개 항목은 실물 전시, 30개 항목은 미디어를 통해 작동 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시했다.

앞서 조립품질 검사를 하던 'SPOT 로봇'은 개회식 때 마이크를 전달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기아 관계자는 "E-FOREST 테크데이"를 통해 신제조기술을 보고, 체험함으로써 직원들의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술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생산공장에 신제조기술 적용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삼성전자, 중소기업에 '제조혁신' 비결 전수

광주사업장서 '스마트공장 3.0 킥 오프' 개최... '스마트공장' 선정 중기 대표 등 300여명 참여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제조혁신' 비결을 전수했다.

삼성전자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스마트공장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대표, 임직원, 관계자 등 300여명을 광주삼성전자 그린시티로 초청 '2023 스마트공장 3.0 킥 오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시작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삼성전자의 제조 현장을 직접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먼저 진행된 스마트공장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하며 혁신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생활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광주 삼성전자 그린시티에 위치한 에어컨, 냉방고, 콤프레서 등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AI를 활용한 생산 시스템 운영과 자동화 설비, 전동 운반차 등 물류 개선, 공정별 간이 자동화 등 현장 혁신 사례를 직접 보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가이드'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지난 8년간의 지원 성과와 기업 상황에



삼성전자 그린캠퍼스에서 열린 '2023 스마트공장 3.0 킥 오프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지원 방안, '스마트공장 3.0' 추진 전략도 소개했다.

지난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공 사례도 소개했는데, 대표적으로 곡성에 소재한 지역기업인 '배수비우스'는 제조 라인을 재배치하고 수작업 공정에 자동화 장비를 도입해 생산량이 3배 향상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표 제철기업에 안정적으로 수주 물량을 공급할 수 있었고 해외 수출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새로 시작되는 '스마트공장

3.0'을 통해 올해 약 200여개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삼성전자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소재 활용을 통한 탄소배출 감소 등 중소기업이 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속가능경영(ESG)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자 노트

지방은행 존재의 이유

최근 충청권에서 충청은행(가칭) 설립 운동이 한창이다. 전라권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경상권은 대구·부산·경남은행이 있는 반면, 충청권은 수도권과 인접해 경제인프라가 풍부함에도 지방은행의 부재로 지역 내 여차별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

충청권에는 IMF 이전 충북은행과 충청은행 등이 지방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경기도의 경기은행과 강원도의 강원은행 또한 마찬가지다.

지방은행이 사라진 자리는 시중은행이 꿰차고, 지금까지 수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당장 역외유출이 심각하다. 2021년 충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114조 6420억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지만, 역외유출 규모는 25조 477억원으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충남도가 직접 충청권 사·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도 63.9%에 달하는 지역민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인재 채용', '재해 발생 시 인적·물적 지원', '지자체와 협약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대학 및 지자체 자금관리', '지역 내 자금 선순환', '사회공헌 활동' 등은 지방은행의 대표적인 역할이다.

지방은행의 부재로 자금 공급의 최우선 대상이 돼야 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외면받고, 지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 여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은행 부재로 인한 서러움에도 그 부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민석
경제부 기자

그렇기에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역채투자 평가'에서 광주은행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주목을 받을 만하다.

광주은행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실시해왔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에 위한 지원 강화에 앞장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은행이 지자체, 기관, 중소기업들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돼 시중은행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자금을 공급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융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오고 있다. 시중은행이 모두 외면할 때 광주글로벌모터스 합작법인에 과감히 300억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낸 것도 광주은행이었다.

지역 밀착경영도 눈에 띈다. 시중은행이 몸집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광주은행은 임대료 부담에도 점포를 늘리고 고객 편의성을 위해 점포 80% 이상을 1층에 마련했다. 너무도 무더웠던 올 여름 광주은행 '무더위 쉼터'는 취약계층의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흔히 '결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 한다. 지금까지처럼 묵묵히, 언제나 그랬듯 광주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아주길 기대해본다.

/mskim@kwangju.co.kr

테마주 열기 시들...광주·전남 주식거래대금 감소

지난달 매도대금 4조6654억...전달대비 1조7201억 줄어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주식 거래가 전달보다 축소됐다.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테마주 열기가 줄어든 데다 미 정부의 대중(對中) 반도체 투자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48.26(-15.08)
↓ 코스닥	906.36(-11.59)
↑ 금리(국고채 3년)	3.847(+0.082)
↑ 환율(USD)	1335.40(+4.90)

제한 조치, 중국 부동산 위기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7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3년 8월 광주·전남 지역 증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의 지난달 주식 매도 거래대금은 4조6654억원으로, 전달(6조7115억원)보다 25.61%(1조7201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주식 매수 거래대금은 6조7088억원에서 5조9122억원으로 24.11%(1조6176억원) 줄었다.

지역민들의 주식 거래는 코스피에서 감소 폭이 컸다.

주식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매수대금은 3조5530

억원에서 2조4778억원으로 30.26%(-1조7522억원) 줄고, 매도대금은 3조5425억원에서 2조4027억원으로, 32.18%(1조1398억원) 줄었다.

코스닥 매수대금은 2조6133억원으로 17.19%(5423억원) 감소하고, 매도대금도 2조5926억원으로 18.29%(5803억원) 감소했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거래가 축소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매수 거래대금 비중은 전달보다 0.19%포인트 감소했고, 매도대금은 0.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달 지역민들은 가장 많이 사고판 주식은 POSCO홀딩스였다. 지역민들은 이 주식을 2875억원 사들이고 2900억원 팔았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를 2900억원 사들이고, 2931억원 팔아치우는 등 거래가 가장 많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한국산업단지공단(이상훈 이사장)은 7일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센터에서 재난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11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안전한국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제공>